클릭! 이종목

우리투자증권 기순삼 목포지점장은 한진해운과 다음을 추천주로 선정했다. 기 지점장은 한진해운의 경우 수익성 개선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컨테이너 운항비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에 대해서는 비주력 사업 매각과 온라인쇼핑몰 분리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어 올해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하락 운송비 부담 줄어

■ 한진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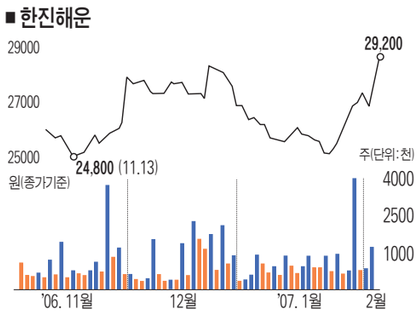
국내 1위의 해상운송 업체로 컨테이너 운송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한진그룹 산하의 회사로 연간 230만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이상의 컨테이너 화물과 6천500만t이상의 벌크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미국 노선에서 2위, 아시아~유럽노선에서 3위의 컨테이너 선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원화강세와 연료비 부담, 운임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매출액 6조513억원, 영업이익 1천49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 증가, 74% 급감 등 성적을 냈다. 하지만 칼 아이칸 등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와 지난해 11월 조수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형제간 지분 경쟁 등으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한진해운 주가를 놓고 각 증권사별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대적 M&A 등 영업외적인 요인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펀더멘털 개선을 반영시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유가 하향안정과 운임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반론이다.

대신증권은 컨테이너 운임이 유럽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지난해 3·4분기부터 회복된데다 유가하락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줄어든점, 중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는 등 한진해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컨테이너 운임의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효과 반영 기대

■ 다음

인터넷 포털 상위 기업. '네이버'의 NHN, '엠파스'의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국내 포털 3인방에 속한다. 매출구성은 한메일넷 광고가 72.3%, 전자상거래가 27.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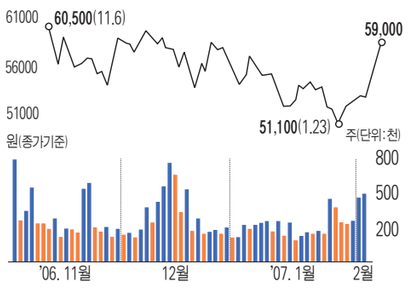
타 포털업체에 비해 메일과 카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라이코스의 비 주력사업 매각과 오이뮤직 등 자회사 일부 정리, 온라인쇼핑몰 사업 분사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구글과 검색광고 제휴를 맺고 3년간 2천100억원의 개런티를 보장받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 자체 개발한 검색엔진을 선보이는 등 검색분야에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다음의 성장동력을 동영상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에서 찾고있다. 다음은 일찌감치 동영상 UCC분야에 파고들어 현재 약 650만개의 카페와 월 1천여만명에 달하는 카페 이용자,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방대한 네트워크를 축적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동영상서비스 순 방문자 수에서 '판도라TV'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포털 동영상 서비스인 'TV팟'과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 섹션인 '동영상 베타'를 'TV팟'으로 통합해 UCC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UCC기반의 동영상 포털서비스는 초기단계라 사업화에 시간이 필요하고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도 산재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다음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

쉽고 깔끔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산품에 부착되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을 전면 교체, 내년부터 생산되는 제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은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2년부터 냉장고·세탁기·에어컨·형광램프 등 18개 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표식이다.

산자부는 기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등급별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효율을 표시하는 핵심 지표명칭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효율'로 일괄 표시되고 있는 전기제품의 경우 전기밥솥은 '취사효율'로, 식기세척기는 '세척효율'로, 세탁기는 '1㎏당 소비전력량'으로 바뀐다.

산자부는 18개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내 관련규정인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지준율 인상' 조치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효과적

금융연구원 분석

작년 12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가 중소기업대출에 부작용을 크게 초래하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4일 '주택시장 유동성관리 수단으로서의 지급준비율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에 대한 수요함수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자율 탄력성은 주택담보대출이 0.41, 중소기업대출이 0.60로 중기대출 수요가 주택대출 수요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며 "지준율 인상으로 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줄더라도 중기대출의 이자율 상승폭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준율 정책이 중기 대출에 큰 부작용을 주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최근 주택시장 유동성 증가가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만큼 총소득부채비율(DTI) 적용대상을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 접대비 6년만에 감소

흑자법인 비율 꾸준히 늘어

기업 등 법인들이 2004년 지출한 접대비가 6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 양극화 속에서도 흑자 법인은 꾸준히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33만3천313개 중 흑자를 낸 법인은 22만3천331개로, 67.0%를 차지했다.

흑자법인 비율은 2001년 64.4%에서 2002년 65.3%, 2003년과 2004년 각 66.3%를 거쳐 더 높아졌다.

업종별 흑자법인 비율은 건설업이 79.1%로 가장 높고 제조업 71.5%, 광업 67.4%, 도매업 66.3%, 금융.보험업 63.0% 등 순이다.

그러나 이들 신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는 5조1천626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746억원(5.0%) 줄었다.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영향이 남아있던 199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2004년 초 접대비 실명제가 실시된데다 경기도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고법인의 97.5%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이번 통계에 포함된 접대비는 대부분 2004년 지출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인들의 접대비가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공개된 통계 중 신고 법인들의 광고선전비 규모는 11조7천677억원에 달했다.

이중 자산 5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5조5천586억원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입학 준비…봄꽃 교복 패션쇼 4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열린 '2007년 봄꽃 교복 패션쇼'에서 학생 모델들이 봄꽃을 소재로 만든 이색 교복과 다양한 일반 교복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예금 금리 인상

연 5%대 속속 등장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여파로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하거나 특판 행사를 진행하면서 연 5%대 정기예금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다만 각 은행의 자금사정과 영업전략에 따라 예금금리 적용 현황이 달라 미리 살펴보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용 1년 정기예금 상품인 우리로모아정기예금에 최고 연 5.2% 금리를 적용 중이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1년 정기예금 상품 금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3월 말까지 2조원 한도로 '정기예금 특별금리 행사'를 진행한다. 특판 기간에 만기 6개월의 정기예금은 연 4.8%, 1년 만기는 연 5.1%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도 1년 정기예금 가입고객에게 최고 연 5.0% 금리를 적용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1년 정기예금 상품인 프리스타일예금에 가입하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5.0%, 1천만~5천만원은 4.95%, 100만~1천만원은 4.9%를 제시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영업점장 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정기예금 금리를 0.1~0.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고단위 플러스 정기예금'에 1억원 이상을 1년 동안 예치했을 때 연 5.0%, 1천만~1억원 미만은 연 4.9%가 적용된다.

기업은행도 고시금리 4.2%에 0.59%의 영업점장 전결금리까지 받으면 최대 연 4.79%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본점 승인금리는 1억원 이상 연 4.65%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기업 66% 설 상여금 지급

작년보다 14%늘어…'봉투'는 얇아져

올해 설에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직장인들이 상여금을 손에 쥘 것으로 보이지만 '봉투' 두께는 오히려 얇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 연휴 휴무기간은 평균 3.5일 가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회원사 208곳을 대상으로 '2007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66.3%로 작년(52.6%)에 비해 13.7%포인트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설 상여금이 고정급화돼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지급비율(71.4%)이 비제조업(51.9%)보다 19.5%포인트 높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69.8%)이, 연봉제 실시로 별도의 상여금을 줄여가고 있는 대기업(61.0%)에 비해 8.8%포인트 많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정몽구 회장 배당소득 293억

10대 그룹 총수 중 4년 연속 최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연말 배당소득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의 작년 배당소득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3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2월 결산 상장 계열사로부터 2006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으로 293억원 정도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 회장이 2005회계연도에 챙긴 연말 배당금 329억4천만원에 비해 11.08% 줄어든 수치이나 4년 연속 배당소득 1위 자리를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작년에 이어 연말 배당소득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12월 결산 상장 계열사인 삼성물산(주당 350원)과 삼성전자(주당 5천원)를 통해 144억7천만원의 연말 배당소득을 챙겼다.

2005년 기준 4위에서 이번에 3위로 올라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LG(주당 750원)와 LG상사(주당 500원)에서 받는 연말 배당소득이 136억4천만원에 달해 전년대비 52.12% 급증했다. /연합뉴스

장애인 노후 대책 부실

장애인재활협 조사, 86%가 무방비

장애인들의 노후 대책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나 금융, 보험 등을 통한 노후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노후 사각지대'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 같은 노후 부실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RI 한국위원회는 최근 농어촌 지역 장애인 1천598명, 도시지역 장애인 3천868명을 표본 분석,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노후 보장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했다. 나머지 86.1%는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대도시(15%), 중소도시(14.5%)에 비해 농어촌 지역(11.8%) 장애인의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1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1	08	14	18	29	44	2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779,075,800	4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1,258,354	26
3	5개 숫자 일치					1,540,081	1,203
4	4개 숫자 일치					61,255	60,492
5	3개 숫자 일치					5,000	996,397

팝콘복권 (제41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6조	439564
2	5억	6조	439563
		6조	43956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63900
5	1만	각조	420
6	2천	각조	56
		각조	81
7	1천	각조	9
		각조	5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상담 및 회원 관리] 정규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5	062-233-8171
㈜아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2/09	062-601-7203
우신오에스	식품가공(삼각김밥/샌드위치)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12	031-222-0853
삼성화재해상보험㈜광주지점	삼성화재 IT강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2/12	062-220-8282
동암건설㈜	토목/건설품질 사원모집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2/15	061-751-5668
㈜에피플러스	반도체 생산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2/16	062-605-9736
남양 특수강	경리/회계/캐드 업무 가능한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16	062-954-9400
㈜soc건설	공무담당 남직원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2/16	062-384-7001
남해종합개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모집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02/16	062-220-2514
㈜원진오토맥	경리업무/영업 및 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17	062-959-0989
㈜제니스메디칼	의료기기 종합병원 거래처 관리 및 영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7	062-369-7979
한진실업㈜	조립line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2/17	062-953-4702
정우이엔티㈜	[호남지역] 지사장 특채용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2/17	02-523-0078
㈜HK	생산직/용접가능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7	062-953-831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